

나주시 '푸드 업사이클링' 생태계 구축

푸드테크 분야 15곳 연구기관·기업·대학 등과 구축 업무협약 음식 부산물 재활용 고부가가치 창출 농식품산업 신성장동력

농업 관련기관이 밀집한 나주시가 음식 부산물을 재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나주시는 최근 시청 이화실에서 푸드테크 분야 15곳의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과 '탄소중립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나주시는 농식품산업 신성장동력으로 꼽히는 '푸드 업사이클링' (Food upcycling) 산업 생태계 거점 구축을 목표로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산·학·연·관 역량을 결집할 방침이다.

협약에는 나주시와 전남도, 한국푸드테크협회, 롯데 중앙연구소, 서울대학교 푸드테크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전남대 푸드테크학과, 동신대 등 연구기관, 대학이 참여한다.

여기에 리하베스트, 좋은영농조합법인, 에이옴, ㈜엠에프엠, 웰바이오㈜, 티즌, 일우팜 영농법인 등 수도권, 지역 소재 관련 기업도 힘을 보탠다.

이들 기관·기업은 협약을 통해 자원 고갈, 기후

위기 등 글로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푸드 업사이클링 분야 기술 개발 등 산·학·연·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푸드 업사이클링을 통한 소재와 제품을 개발하고, 산·학·연·관 협업체 구성에 따른 정책을 제안할 방침이다.

푸드테크 기업에는 경영 상담을 지원하고 창업 기업(스타트업) 육성, 제품 공공 수요 확대 등을 지원한다.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에 도전할 계획이다.

나주시 푸드 업사이클링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센터 구축 기본계획·육성전략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나주시는 농수산물 최대 생산지 중의 하나이다.

음식 부산물 자원이 풍부하고 소재 개발, 제품 실험, 시제품 생산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다.

나주시농수산물산지유통공사(a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

가원, 동신대 한의학과 등 산·학·연 기반시설이 풍부한 점도 입지적 장점으로 꼽힌다.

'음식 부산물 새 활용'을 뜻하는 푸드 업사이클링은 농식품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4차 식품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른 푸드테크산업 10대 분야 중 하나다.

푸드(food)·업그레이드(upgrade)·리사이클링(recycling)을 합친 말로, 식품 부산물이나 상품 가치가 없는 농산물 등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재생산하는 산업을 뜻한다.

자원 고갈, 식품폐기물 급증 등 이 세계적인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자원 순환경제를 통해 탄소중립에 힘을 보태는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7년까지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1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20억달러 수출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협약식에서 "농식품부 푸드테크 육성 계획은 나주가 가진 식품 산업 여건과 자원에 최적화된 산업"이라며 "푸드 업사이클링 분야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돼 나주시가 푸드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장성군이 토종 농산물 생산 농가 조직화에 나선다. 장성토종씨앗연구회 회원들이 토종 씨앗을 선보이는 모습. <장성군 제공>

장성군 토종 농산물 농가 조직화 재배 확대

먹거리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미식 관광도시'를 내건 장성군이 토종 농산물 생산 농가 조직화에 나선다.

장성군과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달 '토종 농산물 음식 개발과 농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에는 장성토종씨앗연구회, '사찰음식 명장' 백양사 천진암 정관스님 등이 참여한다.

장성군은 앞으로 토종 농산물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정관스님·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판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민간단체 '토종씨드림'과 ▲토종 종자 발굴 ▲토종 농산물 재배 교육 ▲농가 조직화를 이루는 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토종씨드림'은 토종 씨앗

과 전통농업을 지키고 확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설립된 민간단체다.

잘 보존된 토종 종자로 재배한 토종 농산물은 전통적인 '한국의 맛'을 구현하는 데 알맞은 식재료다. 재배 과정에서는 화학비료나 농약 사용을 최소화한 친환경 전통농법을 사용한다.

국내 환경에 잘 적응된 품종이라는 것도 장점이 다. 강한 생명력을 지녀 병충해가 발생하더라도 씨앗을 남길 수 있다.

다양한 품종을 적은 양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하나의 작물을 대량 재배하는 단작화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단작화 농법을 사용하면 땅의 양분이 한 작물에만 집중돼 다른 농사를 지을 때 어려움을 겪는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군 어린이 놀이시설 '키움놀이 카페' 개장

강진군이 초등 저학년, 영·유아 놀이시설인 '키움놀이 카페'를 최근 열었다.

키움놀이 카페는 아동친화·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하나로, 강진군 청소년 문화의집 3층에 마련됐다.

개장식은 30여명의 아이와 부모들이 참여했다.

이 공간은 초등학교 저학년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놀이 공간이다.

키움놀이 카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 방과 아동방을 나눴다.

영·유아방은 부모와 함께 5세 미만 어린이 이용할 수 있다.

부모들의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공동육아카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모가 일하며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컴퓨터 등을 갖추고, 수유 의자·아기침대가 있는 수유실도 마련했다.



강진군이 강진읍 남성리 청소년 문화의집에 문을 연 '키움놀이 카페'에서 강진원 강진군수, 어린이, 학부모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강진군 제공>

아동방은 6세부터 초등 3학년까지 어린이들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레고, 슬라임·찰흙, 트램펄린 등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다. 학원이 끝난 후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책을 읽거나 숙제도 할 수 있다.

청소년 문화의집과 수련관은 초등 4학년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나주시(시장 윤병태·앞줄 오른쪽 네 번째)가 푸드테크 기업·대학 등 15개 기관과 '푸드 업사이클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연·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함평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7개 항목 추가

사고 등 피해 500만원 한도 보장

함평군이 이달부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7가지 늘리는 등 보험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함평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에는 이달부터 24시간 상해사망·후유장해, 골절수술비, 화상수술비 등 7개 항목이 추가된다.

올해 신설된 '24시간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장항목은 질병을 제외한 전통형제어, 오토바이, 개

인 이등수단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를 5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가스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급성감염병 사망 등 12개 항목의 지급금액은 오르는 등 총 32개 보장항목이 확대된다.

군민안전보험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 처리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한다.

가입된 항목으로 피해를 본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새로 보장항목이 강화된 군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에게 큰 도움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금 청구 문의는 함평군 안전관리과(061-320-1995) 또는 NH농협손해보험사(1644-9666)로 하면 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